

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金泰亨
編輯人：金命載
印刷人：宋載勳

發行處
安東金氏大宗會

서울시東大門區德慶1洞112-49
電話：244-3717
對替計座：010983-31-0513119
郵便番號：130-091

新年辭



希望찬 一九九六年의 새해를 맞이하여 國內外 宗親 여러분이 健康과 幸運이 充滿하고, 아울러 高堂에 萬福이 담뱃 짓드시기를 誠心껏 祈願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해는 國內外的으로 前例없이 多事多難했던 한 해이었으나, 우리 宗親들은 忠烈公 할아버님을 爲始한 歷代 祖上님들께서 加護해 주시는 蔭德으로 슬기롭게 넘긴 것을 萬幸으로 生覺합니다. 우리는 더욱 崇祖陸族의 理念을 實踐하면서 各其 家庭을 規範있게 다스리고 膝下의 子與孫들을 잘 育成하여 萬世에 繁榮하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當付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信念下에 前進하는 우리 大宗會가 지난 해에 한 爲先事業 中에는 這般 時享에 參祀한 宗親들이 現地에서 살피보신 바와 같이 安東市에서 陵洞 忠烈公 할아버님 山所를 찾아가는 歷路에 里程標를 세웠고, 山所 앞 제철 돌레에 花剛石을 다듬어 石柵을 設置함으로써 높은 築臺로 造成된 제철에서 墜落할 念慮가 없도록 安全裝置가 만들어졌으며, 忠烈公 할아버님의 神道碑閣 돌레에 設置한 石柵 亦是 花剛石을 다듬어 山所 제철 돌레처럼 모두 優雅한 모습으로 謹嚴하게 돋보이는 施設物이 設置되었습니다. (別添 寫眞 參照) 檜谷洞 竹州朴氏 할머님 齋室 마당의 整然한 시멘트 包裝工事 結果며, 無限定 솟아나오는 새로 設置한 우물물은 萬福이 담긴 不老長壽의



△陵洞 忠烈公 山所 제철의 石柵

藥水가 평평 쏟아져 後孫들이 고루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모두가 祖上님의 蔭德이라고 感泣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大宗會에서 施設하는 爲先事業은 지난 해로 一段落되었기 때문에 一九九六年 새해에 할 事業으로는 서울 東大門區 德慶洞에 자리한 우리 安東金氏會館建物을 一九七八年 八月에 買受한 지 十八年이 되는 오늘의 現況은 各層의 窓들이 老毀되어 補修가 切實하며, 會議室이 狹小하여 이를 擴張하고 構造를 變更하여 앞으로 任員會는 會館에서 開催할 수 있도록 改修할 것을 構想하고 있습니다. 今年은 이 事業을 推進하여 우리 安東金氏會館이 堅固하고 보다 크게 活用할 수 있는 會館으로 다시 誕生시키고 이 보금자리에서 우리 大宗會는 大發展과 跳躍의 발걸음을 멈추지



△忠烈公 墓所 里程標

않게 하여야겠다고 會長은 構想하고 있으므로 다음 理事會에서 審議를 거쳐 總會의 承認을 받아 推進할 것입니다. 우리 大宗會의 宿願事業이고 年次事業인 『忠烈公傳記』 發刊事業은 지난 해부터 傳記發刊基金 造成에 着手하였으니, 우리는 繼續基金造成과 發刊準備工作에 多方面으로 持續的인 努力을 傾注하여야 이 課業을 이룩할 수 있다고 切感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國內外 宗親 여러분들의 健勝과 뜻하시는 일이 萬事 如意亨通하시기를 거듭 祝願하면서 新年人事에 가름합니다. 一九九六年 새해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金泰亨 白

禧新賀
旭日昇天之勢로 萬事亨通하시고
樂山樂水로 知仁君子之道樂 누리시고
松四時常青하듯 康寧하시고
鶴壽千年으로 延年益壽萬壽無疆하시어
丙子新春 靑岩金泰亨拜賀

一日善行百年福
一時行惡千年禍
작은 선행은 백년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잠시의 그릇된 일은 그 화가 천년에 미친다.

- 顧問
 - 東哲... 副使公派
 - 學默... 文溫公派
 - 冕鎬... 都評議公派
 - 在元... 翼元公派
 - 在華... 按廉使公派
 - 在德... 按廉使公派
 - 在聲... 翼元公派
 - 在憲... 翼元公派
 - 泰祥... 都評議公派
 - 在官... 翼元公派
 - 塔會... 都評議公派
 - 吉成... 翼元公派
 - 用秀... 都評議公派
 - 璨會... 翼元公派
 - 慶會... 提學公派
 - 道振... 按廉使公派
 - 信... 翼元公派
 - 好振... 按廉使公派
 - 鍾贊... 開城尹公派
- 本部任員
 - 名譽會長
 - 明會... 翼元公派
 - 會長
 - 泰亨... 翼元公派
 - 副會長
 - 相祺... 提學公派
 - 斗會... 按廉使公派
 - 監事
 - 在光... 翼元公派
 - 洋植... 提學公派
 - 命會... 翼元公派
 - 管理部長
 - 尚會... 翼元公派
 - 經理
 - 孫閔順... 密陽人
 - 各派會長(派順)
 - 惠默... 密直司使公派
 - 尚緯... 開城尹公派
 - 在錫... 都事公派
 - 根成... 典書公派
 - 在殷... 副使公派
 - 光日... 文溫公派
 - 炳善... 安靖公派
- 理事
 - 仲會... 密直司使公派
 - 相國... 開城尹公派
 - 潤洙... 都事公派
 - 世鏞... 都事公派
 - 承會... 典書公派
 - 圭恒... 副使公派
 - 琮會... 文溫公派
 - 璟會... 文溫公派
 - 先浩... 安靖公派
 - 康鎬... 都評議公派
 - 鶴秀... 都評議公派
 - 鳳會... 都評議公派
 - 在均... 大護軍公派
 - 得榮... 提學公派
 - 相喆... 提學公派
 - 泰珍... 提學公派
 - 在鴻... 提學公派
 - 德允... 判三司公派
 - 道演... 按廉使公派
 - 在澤... 按廉使公派
 - 昌會... 按廉使公派
 - 中鉉... 按廉使公派
 - 洙萬... 按廉使公派
 - 壽會... 按廉使公派
 - 榮俊... 翼元公派
 - 玄默... 翼元公派
 - 俊會... 翼元公派
 - 先會... 翼元公派
 - 泰雄... 翼元公派
 - 在起... 翼元公派
 - 洙柏... 翼元公派
 - 恒植... 翼元公派
 - 在河... 翼元公派
 - 圭冕... 書雲觀正公派
 - 範植... 正儀公派

忠烈公 할아버님, 竹州朴氏 할아버님 時享祭를 嚴肅히 奉行

昨年 時享은 大宗會의 95年度 爲先事業으로 할아버님 墓庭石築의 欄干이 가파르고 높아서 祭官들이 落傷할 念慮가 있어 欄干石柵을 하고 神道碑閣 保護石柵과 할아버님 山所를 찾는 子孫들을 爲하여 里程標를 建立하였으며, 檜谷洞에도 齋室우물이 물이 적어 享祀時 食水가 困難하여 우물을 改修하였고, 遺墟碑閣 밑의 마당 包裝도 깨끗이 하여 찾아오는 子孫들의 마음이 흐뭇하게 爲先事業을 完工하고 時享을 奉行하였다. 京鄕各地에서 傳貴버스로 많은 子孫들이 雲集하여 享祀 前夜에 齋閣에서 留宿하며 宗事를 議論하고 美談을 나누면서 享祀 分榜을 하였는데, 初獻官은 大宗會 泰亨會長任을, 亞獻官은 提學公派 大宗會理事인 得榮宗親을, 終獻官은 開城尹公 派 平昌郡守 容郁宗親으로 獻官을 分榜하고, 執禮에는 都評議公派 熙國宗親이, 大祝은 翼元公派 哲植宗親이, 贊引은 翼元公派 大宗會理事인 先會宗親으로 分榜하였다. 12월 1日 午前 9時에 새로 단장한 墓庭에 祭官들이 整齊하게 序立하여 執禮의 笏에 따라 嚴肅히 享祀를 마치고 下山하여 簡單한 飲福을 마친 다음 대기한 버스 檜谷洞으로 가서 12時 正刻에 할아버님 享祀를 올렸다. 여기 獻官에 初

獻은 大宗會會長任에서 獻辭하시고, 亞獻官은 提學公派會長 鶴應宗親이, 終獻은 大邱宗親會會長 進演宗親이 獻辭하였으며, 執禮와 大祝은 熙國宗親과 哲植宗親이 執行하여 享祀를 奉行하고 齋閣에 내려와 점심 食事を 마치고 下午 1時 30分에 解散하여 各各 歸郷길에 올랐다.



△ 새로 단장한 신도 비각 석책

文英公(諱恂)祖 時享祭 奉行

지난 11월 29日(陰10月 7日) 忠烈公 할아버님의 셋째 아들인 文英公의 時享을 提學公派와 按廉使公派, 翼元公派, 書雲觀正公派 四派子孫들 百餘名이 參禮하여 敬虔히 차린 祭需을 올리고 執禮의 唱忽에 따라 嚴肅히 奉行하였다. 獻官分榜은 다음과 같다. 初獻: 提學公派 會長 鶴應, 亞獻: 按廉使公派 會長 章會, 終獻: 翼元公派 顧問 璨會

貞簡公(諱永煦), 領三司使公(諱咸), 按廉使公(諱士廉), 少尹公(諱滄) 三代 時享祭를 嚴肅히 奉行

지난 95年 1月 27日(음 10月 5日) 忠北淸原郡 梧倉面 慕亭里 永慕齋에서 按廉使公派, 翼元公派, 書雲觀正公派 三派에서 百餘名의 後孫들이 參禮하여 先祖이신 貞簡公을 爲

계 擴充하여 훌륭히 단장을 마치고 秋享祭를 모시게 되어 萬子孫들이 호뭇해 하였다. 이날 獻官은 다음과 같다. 初獻: 翼元公派 俊會, 亞獻: 按廉使公派 在, 終獻: 書雲觀公派 圭冕

密直司使公(諱七祐) 時享祭 奉行

지난 10月 29日 密直司使公 時享祭를 抱川郡 東面 社稷里 壇所에서 後孫들이 多數 參禮하여 奉行하였다. 初獻은 泰倫, 亞獻은 大宗會 尚會, 終獻은 在 沼 宗親이 各各 獻爵을 하였다.

文肅公(諱永暉), 上洛伯公(諱續), 提學公(諱益達) 祖 時享祭 奉行

지난 95年 11月 28日(陰 10月 6日) 忠南天安郡 並川面 佳田里 山所에서 後孫들이 많이 參禮하여 嚴肅히 奉行하였다. 大宗會에서는 斗會 副會長이 參禮하여 獻辭하고 宗親들과 오랜만에 만나 많은 談笑을 나눴다고 한다. 獻官은 다음과 같다. 初獻: 鶴應, 亞獻: 章會, 終獻: 斗會

開城尹公(諱七霖) 時享祭 奉行

지난 10月 29日 廣州郡 草月面 池月里 壇所에서 多數의 後孫들이 參禮하여 精潔히 차린 祭需을 올리고 派會長의 獻辭으로 嚴肅히 奉行하였다.

月 1日) 抱川郡 倉水面 伍佳里 壇所에서 後孫들이 多數 參禮하여 嚴肅히 奉行하였다. 이날 時享은 뜻이 깊었는데, 10月 7日 書雲觀正公과 公의 아버지 掌令公(諱甚) 두분의 靈壇碑를 精整하고 時祭를 맞이하여 더더욱 後孫들은 호뭇하였다. 이날 獻官은 다음과 같다. 初獻: 元永, 亞獻: 鍾善, 終獻: 成永

安靖公(諱九德) 時享祭 奉行

지난 11月 26日(음 10月 4日) 驪州郡 南面 元承里 墓所에서 多數의 後孫들이 參禮하여 宗派의 在 煥氏가 獻辭을 하고 敬虔한 마음으로 嚴肅히 奉行하였다.

都評議公(諱九鼎) 時享祭 奉行

지난 11月 26日(음 10月 4日) 義城郡 義城邑 杏峴里 山所에서 많은 子孫들이 參禮하여 嚴肅히 奉行하였다.

文肅公(諱永暉), 上洛伯公(諱續), 提學公(諱益達) 祖 時享祭 奉行

지난 95年 11月 28日(陰 10月 6日) 忠南天安郡 並川面 佳田里 山所에서 後孫들이 많이 參禮하여 嚴肅히 奉行하였다. 大宗會에서는 斗會 副會長이 參禮하여 獻辭하고 宗親들과 오랜만에 만나 많은 談笑을 나눴다고 한다. 獻官은 다음과 같다. 初獻: 鶴應, 亞獻: 章會, 終獻: 斗會

按廉使公 六代孫 參奉公(諱公彦) 時享祭 奉行

지난 95年 12月 25日(음 10月 3日) 天安郡 並川面 桃源里 儉大洞 墓所에서 參奉公 以下 4位의 時享을 많은 後孫들이 參禮하여 敬虔한 마음으로 嚴肅히 奉行하였다. 獻官은 다음과 같다. 初獻: 嗣孫 永植, 亞獻: 永會, 終獻: 權會, 大祝: 在 澤

書雲觀正公(諱綏) 時享祭 奉行

지난 11月 23日(음 10

孝昌公園 앞에 짓는 일본 창가학회 포교원 건립 저지 성공

『세계창가학회 한국 불교회측이 결국 효창공원 앞에 짓기로 한 문화회관 건립을 포기한 것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효창동 주민 과 용산구청 및 뜻있는 사회단체의 하나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종친회 정기총회

龍仁宗親會 定期總會를 江陵 鏡浦臺 山莊 콘도에서 會員 全員이 傳貴버스로 參禮하여 盛況裡에 開會하였다. 壽鎔會長의 主官에 따라 江陵會議場所로 가는 길에 忠北 梧倉을 찾아 貞簡公 領三司使 公 按廉使公 山所를 參拜하고, 槐山 陵村 忠敏祠에 들러 忠武公 祠堂을 參拜한 다음 江陵에 到着하여서 翼元公 曾孫인 牧使公 八代孫 槐軒 諱夢相, 夢相의 子 醉隱公 錫晉, 錫晉의 子 省齊公 堉의 三孝 旌閭門과 夢相의 夫人 江陵金氏, 錫晉의 夫人 江陵崔氏 두 烈女 旌閭門을 參拜한 다음, 다음날 總會를 開催하였다. 이날 會議는 豫算決算이 原案대로 滿場一致 可決되고 敦睦한 分屬에서 茶果를 나누고 歸郷하였다.

『광복이 됐지만 여전히 히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는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 문화가 청소년들 사이를 파고 들고 있는 상황에 서 어찌 감히 일본종교가 金九先生 등 애국선열이 잠들어 있는 효창공원 앞에 포교원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金 회장은 건축 철회를 주장하는 진정을 용산구청뿐 아니라 국가

白凡 金九先生 暗殺 真相 證言

— 國會議員 姜信玉 —

지난 1월 12日 國會 議員會館 大講堂에서 광복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李萬燮 前國會議 長의 祝辭로 國회법사 위 백범선생 시해 진상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의 보고회가 있어 이 기 사를 掲載합니다.

一、안두회와 관 련자들의 증언

① 1950년대 綑 逆의 苦悶과 査察要覽

백범 암살에 관해서 는 그간 관련자와 목격 자의 다양한 증언이 있 었으며, 그중 가장 중 요한 것은 물론 암살자 안두회의 증언이다. 안 두회를 비롯한 관련자 들의 증언은 그야말로 현대사의 곡절과 함께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1949년 사 건 직후 안두회는 체포 되어 특무대의 심문을 받았으며, 또한 육군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안두회에 대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은 현재 남아 있지 않 고, 다만 언론인 오소 백의 공판참관기가 남 아 있어 그 상황을 짐 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오소백의 공판참관기 에 나타난 안두회의 주 장은 안두회 스스로 녹 음한 『녹취서』(이하 『마 지막 증언』)으로 표시 함)에서 전부 거짓이 었다고 밝혔다.

필을 시작하였으며, 문 장력이 있는 김이엽이 원고를 다듬어 주었다. 그러나 최종 출간된 책 은 안두회의 원고나 김 이엽이 다듬어준 것과 는 중요한 부분에서 판 이하였다. 요컨대 이 책 은 특무대에 의해 중요 한 부분이 조작된 위서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綑逆의 苦悶』 은 역사적으로 僞書이 기 때문에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책이야말로 안두회線 이상의 암살의 진정한 주체, 즉 고위층의 정 세관과 백범관을 적나 라하게 보여주기 때문 이다.

이 책의 정치적 성격 과 관련된 출간시기도 검토할 만하다. 당시는 제3대 정부통령선거 (1956. 5. 15)를 앞두고 이승만 정권과 신의회를 중심으로 하 는 야당의 대결이 심화 되던 매우 정치적인 시 기였다. 안두회가 책 출간을 결심하던 19 54년 10월에는 「신의 회 조소상의 뉴델리 회 담설」이 유포되었고, 그 해 11월 이승만 정권은 「四捨五入改憲」을 강 행하였다. 또한 백범암 살 사건을 잘 알고 있 는 노라고 호언하던 서북 청년단의 김성주가 원 용덕에 의해 피살되었 다(1954. 4. 17).

이것이 출간되었던 것 이다. 안두회가 밝히고 있 듯이 이 책의 출간 목 적은 시중에 유포되고 있던 「대통령과 군부 의 백범암살 사주설」 에 대한 대응으로, 암 살의 배후는 없으며, 그 가 나라를 위한 단심에 의한 확산범이라는 것 이었다. 결국 『시의 의 고민』은 김창룡 등 특 무대가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조작한 위 서였다고 판단되며, 바 로 그러하기 때문에 『시 의 고민』을 분석하 면, 안두회線 이상의 정세관과 의지를 읽어 낼 수 있다.

한편, 이승만 정권 시절 서울시 경찰국사 찰과에서 발행한 『査察 要覽』(1955)에는 김구선생과 한독당이 공산당과 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규정하 고 있어 경찰의 왜곡된 인식을 잘 보여준다. 『사찰요람』의 내용 중 에는 한독당의 활동가 운데 산하조직인 大韓 輔國義勇團(단장 金錫 廣)이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의 암살에 적극 개입했다고 되어 있고, 1948년 4월 김구 가 평양에 가서 단신단 정을 반대하여 「赤色徒 黨陣營」에 투항했다고 되어 있으며, 이때 공 산당 첩자인 俞鎮軾이 김일성 앞에서 「당신은 우리 삼천만 민족의 영 도자 김구선생을 무시 하고 있으니 내 권총에 죽어 보라」며 거짓 위 협 공갈함으로써 김구 의 돈독한 신임을 받았 다고 하며, 海州에서의 2차 협상에 당원 姜勳 의 4명을 밀파하여 괴뢰집단의 결성을 지지 하고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에 가맹하여 민 국정부를 반대한 점 등 을 언급하면서 한독당 의 이적성을 보여주려 하였다. 가장 희극적인 것은 김구선생이 김학 규의 부하인 안두회에 게 이승만을 암살하도 록 지시했지만 안두회 가 번의하여 오히려 김 구를 살해하였다는 대 목이다. 또한 김구 피 살 후에도 건국실천원 양성소 출신 800여 명이 군과 경찰에 침투 하여 활동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 급하고 있다. 김학규가 재북중인 조소앙·임항 섭과 연결되어 한독당 을 재건하려고 시도하 고 있으므로 은밀히 내 사중이라는 내용도 들 어 있다. 한편, 이승만 에 대해서는 1945 년 10월 그의 환국을 언 급하면서 「삼천만 민족 의 태양으로서 남한 정 계에 있어서 일대 전환 을 가져왔다」고 하면 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 다. 당시 이승만 정권 의 경찰정보 계통에서 김구선생과 한독당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여기에서 명 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결국 1950년대는 『綑逆의 苦悶』과 『査察 要覽』에서 보듯이, 이 승만 정권은 김구선생 암살에 대해 정당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흔 적이 뚜렷했다.

消 息

○ 郡事公派 會長 在錫 氏의 長男 根會宗親 은 京畿道 坡州郡廳 道公務員代表로 清白吏奉仕賞을 受賞 하였으며, 받은 賞金 50萬원을 郡內 불우 이웃에 써달라고 내 놓았다.

○ 翼元公의 曾孫 文靖 公孫 光植宗親이 忠 北 警察總長으로 榮 轉하였다.

○ 按廉使公派 大宗會 前顧問이셨던 故鳳 演宗親의 姪 泰球宗 親은 지난 95년 12월 7日 宇 大宇 任員人 事에서 車部門 會長 으로 昇進되었다.

○ 按廉使公派 容植宗 親의 次女 한숙嬢은 大邱 啓明大學을 卒業하고 嶺南日報가 主催한 新春文藝公 募에서 96新春文藝 小說部門에 當選되 었다.



安東金氏 同親會

安東金氏 同親會 會長 在寬氏外 13名이 忠 烈公傳記發刊基金으 로 貳拾萬원을 誠贊하 였다.

族譜 出版의 元祖

回想社 五大特徵

1. 創立 40週年의 歷史와 全國族譜 90%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界의 元祖
2. 컴퓨터 組版으로 正確迅速한 電算化로 出版界에 一大革新
3. 編料, 整書, 出版, 印刷, 製冊을 모든 過程을 同一場所에서 行수있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4. 原稿에 誤謬가 있을時 組版前 即時 發見하는 30餘年間 勤續한 技能者 多數確保
5. 1,000餘坪以上에 넓은 倉庫의 無料提供으로 1年以上 頌狀 便宜提供

回想社 서울支社 開設

서울地域에서 族譜編纂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의 便宜를 爲하여 本社에서는 서울支社를 開設하였읍니다. 各門中의 收單, 整書, 編輯, 組版,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支社에서 提供코저 하오니 많은 聲援과 移用있으시기 바랍니다.



族譜古書 出版製冊 回想社

本 社: 大田直轄市 東區 中洞 47-4
電話 (042) 253-9881-3, 256-1263
FAX (042) 253-9891 宅電 253-9892
서울支社: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4-3 청호빌딩 403호
電話 (02) 336-6783 FAX (02) 338-9875

韓國 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本社 社屋 全景

컴퓨터 組版으로 技術革新 / 組版 印刷製冊까지 唯一 綜合工場